

# 석유화학, 고유가 직격탄 “휘청”

## 연료대체 및 운송수단 교체에 공정개선 노력 … 가동중단 속출 우려

울산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연일 치솟는 고유가의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있다.

나프타(Naphtha) 원료 벤젠(Benzene), 자일렌(Xylene), 에틸렌(Ethylene), PTA(Purified Terephthalate), 카프로락탐(Caprolactam)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는 국제유가 상승이 곧바로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 적자와 감산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타개책으로 생산원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료대체, 운송수단 교체, 공정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석유화학은 P-X(Para-Xylene) 가격이 2004년 톤당 500-600달러에서 2008년 들어 1200달러 이상 치솟자 울산 PTA 110만톤 플랜트 가동률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PTA 가격은 톤당 1000달러에 못미쳐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LNG를 석탄이나 나무로 대체하는 방안을 울산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인근 공장에 팔아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다.

초산(Acetic Acid)을 생산하는 삼성BP화학은 원료 나프타 가격이 1000달러 이상으로 2004년에 비해 무려 150% 오른 반면, 제품가격은 2007년 680달러에서 2008년 들어 640달러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BP는 초산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4분기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문제와 함께 나프타를 벙커C유로 대체하는 방안과 일산화탄소 생산공정을 고효율적인 공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태광산업은 PTA No.1 100만톤 플랜트의 원료 P-X 가격이 2008년 들어 30% 이상 오른데다 운송기업들이 2월 인상한 운송비를 또 올려 달라고 요구해 채산성 하락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면서 동력(스팀) 생산에 사용하는 벙커C유를 석탄으로 대체하기 위해 울산시 등에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운송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물량을 울산항에서 바로 선적하기 위해 선박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카프로는 원료 벤젠가격이 2004년 500달러 안팎이었으나 2008년 들어 1240달러까지 오르면서 7년 연속 적자가 우려되자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등 모든 직원들이 연료비 절감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다른 석유화학기업에 비해 사정이 다소 낫다던 한화석유화학도 PE(Polyethylene)과 전선피복 등 코팅용 원료(EVA)인 에틸렌 가격이 계속 오르자 2007년부터 소량 다품종의 특화제품 개발과 수출시장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또 HDPE(High Density PE)과 PP(Polypropylene) 등을 생산하는 대한유화는 원료 나프타 가격의 인상을 제품가격이 따라잡지 못하자 원가절감과 에너지 절약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아래 설비공정 개선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도 PTA와 특수페인트 첨가제를 생산하는 KP케미칼, PTA를 생산하는 효성 용연 2공장 등도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아 감산이나 적자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래 없는 유가 급등으로 제품가격이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석유화학업계에 건디기 힘든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미 구조조정을 거쳤고 경비절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면 하반기에는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2>